

NO: #0001

DATE: 2022.05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함께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다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랑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875일만의 모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도약식

1

미션, 핵심가치, 비전

우리의 새로운 미션 '사랑을 봅니다'
6개의 핵심가치 그리고 비전 2025 공유

2

2022년 조직체계

우리의 방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조직도의 흐름들이 함께 되어야 함

3

함께 만들어갈 몇가지 과제들

조직문화성장실, 경영분석실, 브랜드실 운영,
보상, 나눔 그리고 습관에 관한 노력

WWW.SNH.OR.KR



백선미 병원장님 도약식 말씀 중에,

세가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션과 핵심가치 그리고 비전입니다. 기존의 병원이념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 새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팀장님들과 전직원의 참여로 소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체계의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 병원의 성장과 함께 끊임없이 크고 작은 조직체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조직도의 흐름들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만들어갈 과제들에 대한 공유 그리고 핵심습관을 만들고 지켜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2022.05.11)

“

오랜만이죠

2년만이죠.

함께 할 수 있기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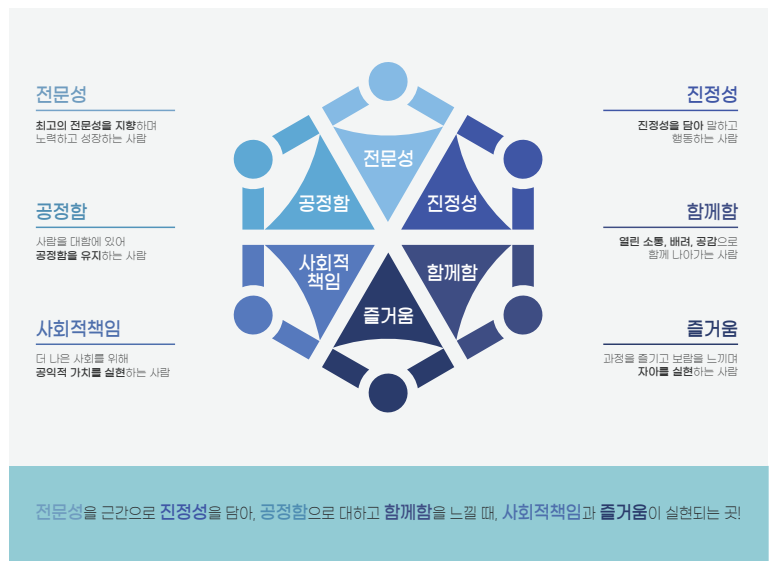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통합센터 정기교육 (05.04)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4시30분에는 통합센터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3층 유방갑상선센터, 건강증진센터, 6층 회의실에서 3가지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케어회의 진행 (05.13)

우리 병원과 해운대구청은 지난 21년 6월부터 참여자들의 원활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형 통합돌봄 「해운대 On보살핌」과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퇴원환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로 퇴원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올해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은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재가의료와 돌봄통합연계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발굴, 요구도 평가를 거쳐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드리며, 퇴원 후 1여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일상으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해운대구청과 협약하여 이날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입원부터 치료, 재활, 퇴원 및 퇴원 후 일상으로 회복과 정착을 위해 우리 병원 의료, 간호, 영양, 사회사업팀과 구청의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보도자료 >

해운대구, '재가 의료급여사업' 순항 중



<2022.05.12 연합뉴스 보도자료 게재>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 진행 (05.26)



삼행시 공모전!



5/4일부터 5/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직원 및 참여자,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부문(손위생, 코로나, 마스크)과 환자안전 부문(낙상, 욕창, 안전)으로 삼행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참여자신 모든 분들에게도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깨끗한 손을 향해 쏘라!



손위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위에 색깔을 다르게 구분하여 다트게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손씻기 다트게임을 통해 손을 씻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감염 예방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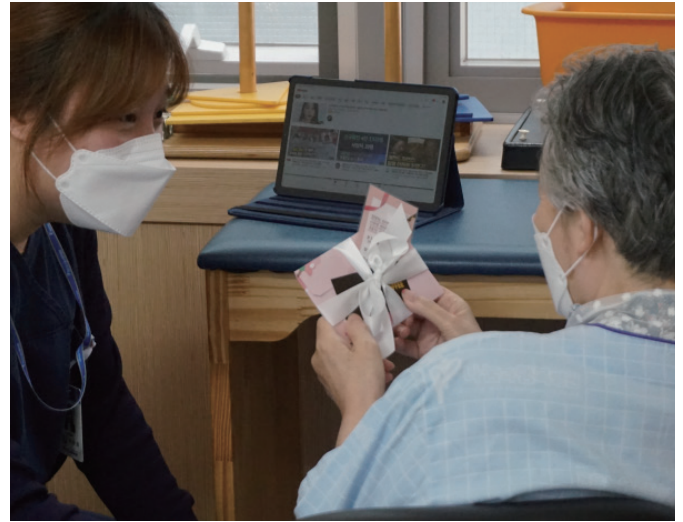


일상적인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회사업팀과 함께하는 5월의 이벤트



어버이날 이벤트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 (05.06)



가정의 달 이벤트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05.11)



포토존 이벤트
'5월 愛 다시, 봄' (05.中)



이벤트 프로그램
'나만의 텃밭 가꾸기' (05.27)

당연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빼앗겨버렸던 우리. 다시 시작하는 병동 프로그램



이·미용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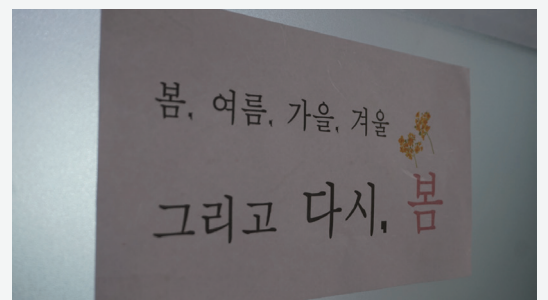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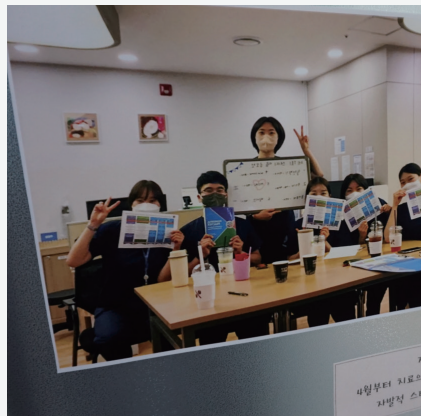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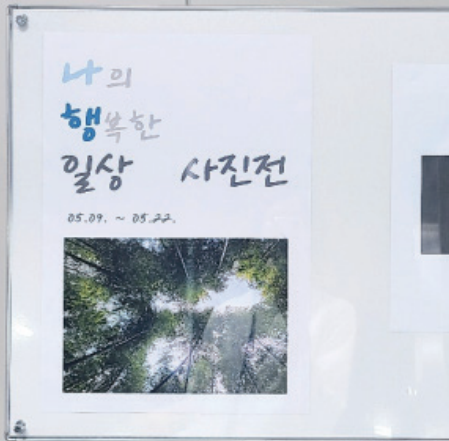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2년간 멈춰버렸던 프로그램이 하나씩 진행되었고, 5월부터 다시 이·미용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봉사자에서부터 단체 봉사지원단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5/2일, 5/3일, 5/6일, 5/10일에 거쳐 아낌없는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책임감있는 자세와 봉사정신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면회 예약제 실시

2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면회예약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과 그리운 사람을 보고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가혹한 코로나의 시대를 그 어떤 만남과 면회도 없이 온몸으로 통과해야만 했던 가족분들이었습니다. 해당 간호사실에 사전 신청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만 실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병동·병실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기다려 봅니다.

5월 愛 어느 멋진 날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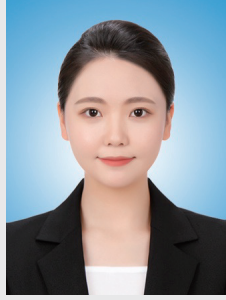
5월초에 나의 행복한 일상 사진 공모를 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사진을 인화해서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행복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5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8W) 심예은 간호사



간호팀(7W) 장효은 간호사



영양팀 장경옥 조리원



총무팀 권가영 주무

갑상선 기능 관련 진료의 전문화 내분비 기관 이상 질환 정밀화

갑상선을 포함하여 당뇨, 고지혈증 등 내분비기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전문의가 직접 진료 받으셔서 한층 더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6/1일부터 내분비내과 개설
박찬호 과장님 초빙



“ 6월엔,



재활치료2팀 김태연 선생님 결혼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서로의 손을 잡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 깊어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려 합니다.

저희의 아름다운 시작에 소중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4일 토요일 낮12시

더펄웨딩홀 2층 단독홀

간호팀(8W) 양희지 선생님 결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빌2:2)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매듭이 되고 하나의 길이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걸음 축복해 주십시오.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더S 웨딩홀 1층 컨벤션홀



홍보팀장의 '브런치'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40대 중반에 피아노를 배우는 이유는?

내 안에 쌓인 결핍, 본능적으로 끌리는 취향 같은 것들을 찾아서.

'당근~' '당근~'

휴대폰에서 알람이 수시로 울린다. 요즘 유행하는 당근마켓에 #피아노 #전자건반 #디지털피아노 키워드로 알람키워드를 설정한 탓이다.

지역근처의 판매자가 피아노 관련 중고물품을 올리고, 나는 알람소리에 맞춰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다. 가장 가성비 좋은 피아노 건반을 낚아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적정가의 중고 디지털피아노건반을 내 품에 넣게 되었다.

사실 집에는 아내가 어릴 적 사용했던 클래식 피아노(업라이트)가 작은방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결혼과 함께 우리식구가 된 이 피아노는 울림이 너무 커서 장식용으로 10년이 넘게 잠들고 있다. 물론 아주 가끔 아이들에 인사를 건넨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에 시간을 입을 다문 채 많은 짐들을 쌓아올려주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적어도 사십대 중반인 내가 피아노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인생에서 벽을 만났다면

피하지 말고, 노크해보세요.

예의를 갖춰서 노크해보는 걸로요.

어떤 벽은 정말로 다리가 됩니다.

_유병욱 《세상을 바꾸는 시간,15분》(1255회)

내가 좋아하는 작가 유병욱을 처음 알게 된 건 약 1년 전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이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짧은 강연을 통해 느낀 게 많았다. 자기가 평소, 아니면 살면서 꼭 해보고 싶었지만 못해본 것을 시도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내용의 강의였다. 가슴에 와 닿으면 반드시 메모를 통해 기록을 해놓고 있던 터라, 메모장 어딘가에 적어놓았다. 그 것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올해 초 읽은 《기획자의 독서_김도영》 책 말미에 유병욱의 책 소개가 언급되었고, 나는 365일 동안 잠들어있던 내 머릿속 유병욱 강연을 떠올린다. 발걸음은 도서관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 《생각의 기쁨》을 만나게 된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는 것,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당겨온 것들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려면 살면서 내 안에 쌓인 결핍이라든지,

본능적으로 끌리는 취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땅 파기'의 무서운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남의 의견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_유병욱 《생각의 기쁨_유병욱》(북하우스)

이 글귀를 읽는 순간 12달 전의 유병욱이 했던 강연이 생각났다. 그리고 내 안에 쌓인 결핍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본능적으로 끌리는 취향이 뭘까?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취향? 취미는 뭐가 있을까? 하고 싶은데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시간은 어느새 35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4~5학년인 내가 엄마에게 조르고 있다.

'엄마! 나 피아노학원 보내줘'

'피아노 학원은 무슨!'

돌아오는 엄마의 대답은 아마 그 시절 누구나 그러했듯이 사내 녀석이 무슨 피아노학원이냐는 핀잔의 소리였을 것이다. 몇 번을 조르고 즐겼지만 결국 내 발걸음은 태권도학원을 향하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다. 내 안에 쌓인 결핍이 피아노라는 것을 직감했다. 항상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렇게 나와 함께 35년을 더 지낸 것이다. 피아노 배운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나이인데, 너무 늦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면 거. 짓. 말.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느낌도 달랐다. 실행력도 달랐다. 피아노에 대한 결핍을 깨닫고는 바로 도서관에서 피아노 독학과 관련된 책들을 빌렸고, 아는 지인을 통해 오래되었지만 디지털피아노건반을 무료로 얻었다. 이걸 직장에서 연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집에서 오며가며 심심할 때 연습할 목적으로 알아본 것이 바로 초반에 언급한 '당근'에서 구입한 디지털피아노이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둔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습득력이 빠른 것일까? 양손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는데 머리 따로, 눈 따로, 손 따로 이다. 반면 초등5학년 큰아들은 나보다 빨리 잘 배운다. 물론 아빠나 아들이나 독학이다. 가끔 아내가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자 역할을 한다. 우리 무조건 따라야 하는 초보자다. 그리고 우리 둘은 선의의 경쟁자다. 지금은 '어머님 은혜'라는 곡을 누가 빨리 안 틀리고 연주하는가를 놓고 따로 똑같이 연습중이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여기까지 현재로서는 아들이 앞서고 있다. 독하다. 내가 느린 건지 아들이 빠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부럽다. 안 틀리고 두 마디 하는 큰아들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내 안에 쌓인 결핍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피아노였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멈춰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 까닭에 어느덧 어머님 은혜를 두 손으로 배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적어도 피아노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것으로 흐뭇하다. 언젠간 파헬벨의 캐논/캐논변주곡을 멋지게 연주할 상상을 해본다.

오늘도 왼손은 도미솔 도미솔 도파라 도미솔, 오른손은 미파솔도 도시라솔을 틀리지 않고 연습해야 한다.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

오늘 퇴근길에

일흔이 넘은 어머님께

전화 한통 드려야겠다.

왜 그때 피아노학원 안보내줬냐고

웃으면서 말이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